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26일)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이번엔 '불교 AI뮤직' 인기 'Hip한 불교' 열풍 이어간다

유튜버 '곰딴', 반야심경 AI뮤직 제작
한 달 만에 32만 조회수 기록 '인기'
진우 스님 '선명상TV' AI뮤직 업로드
스님 법문 핵심을 노래로 대중에 알려
조계사 AI뮤직 1분 숏츠 콘텐츠 공개
부산국제불교박람회 'AI뮤직 공모전'도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5초만 기다려 마음을 들여다봐. 괴로움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우면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다네."

7월 23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5강에 앞서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는 진우 스님이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설한 법문의 핵심을 가사에 담아 AI(인공지능)로 만든 노래, 일명 'AI뮤직'이다. 현재 진우 스님의 유튜브 채널 '선명상TV'에 업로드돼 있다.

AI툴로 제작한 '불교 AI뮤직'이 '힙(Hip)한 불교' 열풍을 이어갈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AI뮤직'을 대중적으로 알린 것은 유튜버 '곰딴(GOMDAN)'이다. 곰딴은 지난 6월 9일 '반야심경(Heart Sutra)'을 공개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확산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현재 해당 콘텐츠는 32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후 곰딴은 '반야심경'을 2시간 연속으로 들을 수 있는 콘텐츠와 '참회 천수경' 등 '불교 AI뮤직' 콘텐츠를 잇달아 제작·공개하고 있다.

곰딴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식당을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만든 노래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는 모두의 '반야심경'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를 즐겁게 공부하며 많은 사람과 불교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 AI뮤직'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중심에는 진우 스님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은 유튜브 채널 '선명상TV'에 이어 '불(佛)닦는 소리' 채널을 최근 개설했다. 최근 업로드된 '부처님도 비트타셨잖아요'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힙합 선율에 얹힌 생활 법문 가사가 '찰떡'같이 어울린다. 또 다른 콘텐츠인 '반야심경 보컬로이드 리믹스'는 반야심경을 랩으로 풀어냈다. 일반 대중가요로 불려져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도록 제작된 게 특징이다.

해당 콘텐츠의 제작자는 김영찬 조계종 홍보위원이다. 올해 2월 동국대를 졸업한 김 위원은 인공지능 챗봇 '스님AI'을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AI 전시, 연등회 등 다양한 불교행사에서 획기적인 콘텐츠를 선보인 능력자다. 그의 합류로 채널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채널 관계자는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강의를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음악과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AI뮤직 제작을 떠올렸다. 법문 내용을 던져주고 핵심 키워드로 명령을 해 가사를 뽑고, 선율을 붙여 콘텐츠를 생성했다"면서 "앞으로 '불닦는소리' 채널에는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를 함께 부르는 신조어)'를 타겟으로 한 AI뮤직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도 AI뮤직 콘텐츠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여기는 대웅전 꿈을 꾸는 곳'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는 약 1분가량의 숏츠로 제작됐다.

이해진 조계사 홍보팀장은 "조계사는 1년 전부터 시대에 맞춘 포교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AI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해 활용방법을 고민했다. 최근 AI 발전속도가 빨라지며 AI뮤직 콘텐츠 제작에도 속도가 붙었다"면서 "'여기는 대웅전 꿈을 꾸는 곳'은 조계사 연꽃축제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젊은 감성으로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AI뮤직 콘텐츠를 제작해 사찰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AI불교음악 공모전 열고, 열풍을 이어간다. 7월 24~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으로 뉴진 스님과 유튜버 곰딴, 불교크리에이터 강산이 참여한다.

'AI 불교음악 공모전'은 참가자격이나 장르 등의 제한은 없지만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창작곡만 공모가 가능하며, 전체 곡의 30% 이상이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제작돼야 한다. 8월 2일 오후 6시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수상자가 공개된다.

대상 1명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홍보에 활용되며 박람회 현장에서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공개될 예정이다.

박람회 관계자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재밌는 불교 2탄'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힙한 불교', '재밌는 불교' 등을 콘텐츠로 접하며 불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전통불교문화의 저변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인터뷰 3면〉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이 7월 24일 열린 대종사 품서식에서 선묵 고담 스님에게 법계증과 가사고리, 불자를 전달하고 있다.

태고종 대종사 14명 탄생…"종단 중흥 견인"

7월 24일 대종사 법계 품서식
종정예하 운경 스님 법문 설해
"어른으로 권위를 갖추라" 당부


태종사 품서식 이후 이뤄진 기념촬영 모습.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교육원장 재홍 스님 등 14명의 스님들이 품수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4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2024년 대종사 특별 법계 품서식 및 연찬회'를 봉행했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된 이날 품서식에는 원로의장 호명 스님, 총무원장 상진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예경실장 동허 스님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랍 40년·세납 65세 이상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종사를 품수한 스님은 △지암 재홍 △묵림 종매 △선묵 고담 △지산 도인 △화동 지성 △법선 상명 △성파 혜각 △록담 무덕 △설봉 동표 △호산 상윤 △관응 월인 △청암 청보 △지환 경봉 △현광 구담 스님 등 14명이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대종사 품수 스님들에게 법계증과 대종사를 상징하는 가사고리, 불자를 수여했다.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 어른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운경 스님은 "오늘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은 스님들은 종단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됐다"면서 "종단의 어른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갖춰달라. 또한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종단 발전과 중흥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의 가풍은 수행자 개개인의 엄중한 위의와 엄격한 위계질서에 근본을 두고 있다"면서 "종단의 큰 어른으로서 후학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신 스님들의 대종사 품서를 계기로 반듯한 종단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은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종풍진작의 열기가 가득하다"며 "오늘 품서식을 계기로 종단 큰 어른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통해 올바로 나아갈 길을 지도편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축사를 통해 "법계는 종단 위계질서으로 법계 품수자는 공인된 권위와 함께 종단 부양책무와 사회교화의 책임을 지는 승계(僧戒)의 상징"이라며 "대종사 법계 품수식을 통하여 종단의 위계와 기강이 더욱 확립되고 종지종풍이 세상에 드날려 종단의 중흥불사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호법원장 혜일 스님은 "대종사 법계 품수자들은 종단 지도자로서 깊은 애종심 그리고 충분한 학식과 수행력을 겸비하셨다"면서 "품서식을 통해 종단의 기강과 위계가 더욱 확립되고 종단이 크게 발전하는데 대종사 품수자들이 많은 역할과 기여를 바란다. 호법원도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을 중심으로 종단 위계와 승풍진작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쉽니다.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제자인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